

# 4중이제설에 관한 비판적 고찰\*

## - 길장은 그 당시 다른 학파들을 겨냥하여 4중이제설을 전개했는가? -

조윤경

(국립안동대학교 조교수)

### 국문 초록

4중이제설은 길장이 삼론종의 전통적인 3중이제설을 토대로 창조한 이제설로서, 삼론종에서 가장 잘 알려진 이론 가운데 하나다. 4중이제설과 관련된 선행연구 대부분은 『대승현론』에 소개된 4중이제설을 중심으로 길장의 타 문헌에 언급된 4중이제설을 통합적으로 연구했다. 그런데 『대승현론』은 길장이나 길장의 제자의 편찬이 아닌, 후대에 가탁된 문헌으로 길장의 사상을 여러 측면에서 왜곡시키고 있고, 4중이제설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기실, 4중이제설에 관한 기존 해석 가운데는 재검토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다. 이 논문은 그중에서 4중이제설의 교화대상에 초점을 맞추어, 길장이 과연 그 당시 다른 학파들을 겨냥하여 4중이제설을 전개했는지 살펴보았다. 대다수 연구에서 길장의 4중이제설을 당시 중국의 비담사, 성실론사, 지론사, 섭론사의 이제설을 대치하기 위해 3중이제설에서 한 단계를 더해 발전시킨 학설로 간주했다. 그러나 이 주장의 근거가 된 『대승현론』은 길장의 4중이제설을 오해하고 있으며, 4중이제설의 출현은 당시 지론종이나 섭론종과 같은 유식학파와 무관하다. 4중이제설의 교화대상은

\* 이 논문은 2020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0S1A5A8046585)

초기 3중이제설과 마찬가지로 범부, 이승, 보살이다. 그리고 『대승현론』에서 언급한 비담사, 성실사, 대승사(지론사 및 섭론사)를 이 세 대상에 대응시켜 해석하는 방식은 길장의 의도와 거리가 멀다.

길장의 4중이제설은 결코 전통적인 3중이제설의 맥락에서 벗어난 별개의 학설이 아니라, 3중이제설과 연속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중층적 이제설이다. 4중이제설의 각 단계가 겨냥한 교화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앞으로 4중이제설의 전체 논리 구조와 사상적 특징을 밝히기 위한 토대 작업이다.

주제어: 4중이제설, 3중이제설, 길장, 삼론종, 『대승현론』, 지론사, 섭론사

## I. 머리말

4중이제설은 삼론종의 대표적 논사인 길장(吉藏, 549~623)의 이제설로서, 삼론종 연구에서 4중이제설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전통적인 3중이제설과 함께 가장 많이 다루어진 소재다. 여러 선행연구에서 4중이제설의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구조에 주목하여 삼론종 이제 학설의 특징을 도출했기에, 4중이제설은 자연스럽게 삼론종을 대표하는 학설로 자리 잡게 되었다.

그동안 길장의 4중이제설에 관한 연구들은 세부적인 내용에서는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공통된 시각으로 4중이제설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 길장은 본래 삼론종의 전통적 3중이제설을 계승하였다가 후에 4중이제설을 창안했는데, 이 4중이제설은 『중관론소』, 『십이문론소』, 그리고 『대승현론』에서만 한정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다. 그런데 기존에 4중이제설을 이해하는 근간이 되었던 『대승현론』이 길장의 저서가 아닌, 후대에 길장의 이름에 가탁된 문헌임이 밝혀지면서, 4중이제설에 관한 기존의 해석도 새로 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사실 『대승현론』에 나타난 4중이제설은 길장의 다른 문헌들에서 보이는 4중이제설과는 이론의 결이 상반되어 충돌하는 부분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길장의 4중이제설을 파악하는 데 가장 중심적 역할을 했던 문헌은 다름 아닌 『대승현론』이었다. 『대승현론』이 삼론종 연구에서 오랫동안 높은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승현론』에서 언급된 4중이제설이 비교적 간명하면서도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

했기 때문이다. 물론 『대승현론』에 나타난 4중이제설은 하나의 독립적인 학설로서 나름의 고유한 해석학적 가치를 인정할 수 있지만, 길장의 이제 사상을 충실하게 대변한 해석인지는 회의적이다.

필자는 『대승현론』을 기반으로 한 4중이제설에 대한 기존 이해가 전면적으로 재검토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대승현론』과 길장의 여러 텍스트 간의 비교를 통해, 4중이제의 각 단계가 설정하고 있는 교화대상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4중이제설의 교화대상에 대한 재규정은 향후 4중이제설의 구조와 사상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토대이기도 하다.

## II. 4중이제설의 기본구조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은 여러 층위의 진속이제를 중층적으로 쌓아 올려 만든 삼론종의 대표적인 이제 학설이다. '3중 이제'는 '3중 이제(三種二諦)'라고 지칭하기도 하며, 길장을 포함한 선대와 후대 삼론사 들이 공통으로 계승한 이제설이다. 반면, 4중이제설은 길장이 전통적인 3중이제설에 제4중 이제를 한 겹 더 쌓아 올려 고안한 독창적인 이제설로, 길장의 초기 문헌에는 보이지 않다가 비교적 후기에 찬술한 『중관론소』, 『십이문론소』 및 후대 문헌으로 보이는 『대승현론』에 나타난다. 따라서 길장의 4중이제설은 3중이제설보다 개인의 사상적 특징과 지향점이 더욱 뚜렷하게 반영된 학설로 간주할 수 있다.

길장의 4중이제설은 삼론종 3중이제설을 계승하고, 그 세 가지 층위의 이제 위에 다시 한 층위의 이제를 쌓아 올려 총 네 겹의 이제로 발전시킨 이제설이다. 구체적으로, 4중이제의 각각의 층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계의 이제에서는 유가 속제이고 공이 진제이다. 둘째 단계의 이제에서는 앞에서 말한 유나 공이 모두 속제이고, 비유비공(非有非空)이야말로 진제다. 셋째 단계의 이제에서는 전 단계에서 말한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이 모두 속제이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이야말로 진제이다. 여기까지는 전통적인 3중이제설에 속하는 내용으로, 길장은 3중 이제보다 더 궁극적인 넷째 단계의 이제를 제시한다. 이 마지막 단계의 이제에서는 전 단계에서 말한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 및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이 모두 교문(教門)이며 속제일 뿐이고, 언어와 사고가 모두 끊어져 무소의득(無所依得)한 궁극적인 경지야말로 진제라고 주장한다.

## 〈표1〉 4중이제설의 구조

제1중 이제:	세제 有	진제 無
제2중 이제:	세제 二(有, 無)	진제 不二(非有非無)
제3중 이제:	세제 二(有, 無) 不二(非有非無)	진제 非二非不二
제4중 이제:	세제 教門	제일의제 理

삼론종에서 진속이제는 서로 고정된 역할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된다.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의 각 단계는 모두 속제의 상태에 머무르는 것을 경계하고 속제를 발관으로 삼아 진제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는 큰 틀에서는 동일하다. 그리고 각 단계의 속제는 교화대상의 현재 인식을 나타내는 ‘어제(於謫)’의 측면이 두드러지며, 진제는 어제를 벗어나 궁극적 깨달음을 지향하는 ‘교제(教謫)’의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삼론종 공통의 3중 이제와 길장의 제4중 이제 사이에는 본질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것은 『중관론소』에서 지적했듯이, ‘3중 이제’는 모두 교문이며 마지막 제4중 진제는 이치<sup>2)</sup>라는 점이다. 4중이제설의 최종 단계는 언어로 표현될 수 있는 교문(教門)을 초월한, 모든 분별이 끊어진 궁극의 실상, 즉 이치 그 자체를 진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길장은 제4중 이제에서 교문이 아닌 궁극적 이치를 제일의제로 설정하여, 열린 형식으로 표현된 3중이제설을 닫힌 구조의 4중이제설로 전환했다. 그러므로 가르침의 시각에서 보면, 4중이제설의 최종 단계에서는 앞의 3중 이제와 구별되는 새로운 제4의 가르침을 제일의제로 제시한 것이 아니라, 제3중 이제의 가르침을 통해 가르침의 궁극적 목적인 깨달음을 실현할 것을 다시 한번 역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4중이제설은 전통적인 3중이제설의 맥락을 벗어난 학설이 아니라, 길장이 3중이제

1) 『中觀論疏』卷2(T. 42, 28b1-6): 二者, 他但以有爲世謫. 空爲眞謫. 今明若有若空皆是世謫. 非空非有始名眞謫. 三者, 空有爲二, 非空非有爲不二, 二與不二皆是世謫. 非二非不二方名爲眞謫. 四者, 此三種二謫皆是教門, 說此三門, 爲令悟不二, 無所依得, 始名爲理也.

2) 『中觀論疏』卷2(T. 42, 28b4-6).

설을 보완한 이론이다. 이 4중이제설에 관해서 여러 오해가 있지만, 가장 일반적인 오해는, 삼론종의 중층적 이제설이 타 학파의 이제설을 대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3중이제설만으로는 당시 불교계의 지각 변동을 담아낼 수 없었으므로 길장이 4중 이제설을 고안해냈다는 해석이다. 이에 관한 대표적 해석과 선행연구의 근거가 된 『대승현론 이제의』 텍스트를 검토해보자.

### Ⅲ. 선행연구 검토

4중이제설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지만, 그 가운데 대표적인 몇 가지 연구를 선별적으로 소개하겠다.

#### 1. 히라이슌에이(平井俊榮)

대표적인 삼론학자 히라이슌에이는 『중국 반야사상사 연구: 길장과 삼론학과』(1976)에서 길장의 3중이제설을 점진적인 버림(漸捨)과 유래인(由來人), 즉 성실론사의 대치라는 측면에서 조명했다.<sup>3)</sup> 그는 길장의 이제설이 성실학파의 ‘약리이제설(約理二諦說)’을 대치하기 위해 시설한 것이라는 전제 속에서 3중 이제의 각 단계도 상대 학설과 필연적인 관련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고 파악한다. 그리고 길장이 각 학파와 대외적 논쟁을 계기로,<sup>4)</sup> “3중설 상에 다시 대기(對機)를 예상하여”<sup>5)</sup> 4중의 발전적 구조를 설정한 것이 4중이제설이라고 주장한다. 길장이 만년에 『중관론소』, 『대승현론』에서 전통적인 3중이제설과 다른 4중이제설을 고안한 까닭은 복지 섭론학의 이제설에 대항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제의』에서는 제3중의 대기는 극히 일반적으로 ‘유득[得]의 보살’(T. 45, 91a)로 되어 있었던 것이 여기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섭론사의 삼성(진실성은 진제) 삼무성으로 되어 있고, 다시 거듭하여 제4중을 보태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은 섭론사의 비안립제(언망려절의 경(境))의 제시에 대처하기 위해서였던 것을 알 수 있다.<sup>6)</sup>

3) 히라이슌에이 2020, 671-672.

4) 히라이슌에이 2020, 672.

5) 히라이슌에이 2020, 672.

6) 히라이슌에이 2020, 674-675.

히라이슈에이는 『대승현론』의 ‘삼성’(의타, 분별, 진실), ‘삼무성(三無性)’, ‘비안립제(非安立諦)’ 등의 구절을 근거로 길장의 4중이제설이 비판하는 대상은 복지의 섭론사라고 확신한다. 그에 따르면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의 차이는 주요 비판 대상이 달라진 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그는 “3중 이제는 주로 남지에서의 성실의 이제설에 대해, 4중 이제설은 다시 복지에서의 섭론의 학설에 대항하기 위해 오로지 대기(對機)의 측면에서 중층적으로 구축된 이제설<sup>7)</sup>”이라고 주장했다.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이 타 학파의 학설을 비판하려는 의도로 고안된 학설로서, 삼론종에서 복지의 섭론학과 대결하기 위해 4중이제설을 새롭게 구축했다는 히라이슈에이의 관점은 현재까지도 영향력 있는 주장이다.

## 2. 리스지에(李世傑)

이후 여러 학자가 히라이슈에이의 해석을 발전시켜 4중이제설이 타 학파의 이제설에 대한 길장의 비판을 총체적 구조로 담아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는데, 아래에 소개할 리스지에, 양웨이난, 석장칭, 천핑쿤 등이 모두 4중 이제의 각 단계를 타 학파의 이제설에 대한 비판으로 간주했다.

우선, 리스지에(1978)은 ‘약교이제설(約教二諦說)’의 관점으로 길장의 4중이제설을 접근한 점에서는 히라이슈에이와 상통하지만, ‘가르침’과 ‘경계’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는 통찰을 제시했다. 그는 이를 바탕으로, ‘약교이제(約教二諦)는 삼론종이 유소득(有所得)을 논파하기 위해 자주 사용한 방법<sup>8)</sup>’으로 받아들일 것을 제안한다.

승전, 범랑, 길장 등 신삼론사는 ‘약리’의 이제설이 ‘유소득’의 ‘견해’에 떨어지기 쉬우므로, ‘약교’이제로서 ‘유소득’의 고집을 논파했고, 그것을 논파하지 않으면 불법의 바른 이치가 드러나기 어렵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또한 이제가 가르침이라고 고집하지는 않았는데, 왜냐하면 바른 도는 결코 진속이 아니고 중생을 위해 ‘진’과 ‘속’의 이름으로 설법하였으니, ‘이견(理見)’이나 ‘교견(教見)’ 모두 옳지 않다. 그러나 만일 진실한 의미를 얻게 되면, ‘경계’(이치)와 ‘가르침’이 모두 무방하니, ‘진’과 ‘속’으로써 ‘이치’에 통하기 때문에 ‘가르침’이라고 하고, 진속이 지혜를 발생시키면 ‘경계’라고 한다. 여래가 이제를 설법하므로 이제는 ‘가르침’이고, 여래가 이제를 관조하면 이제는 ‘경계’이니, 그렇다면 이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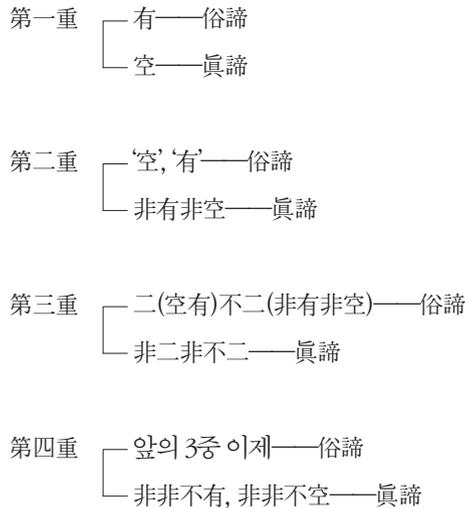
7) 히라이슈에이 2020, 675.

8)李世傑 1999, 184.

‘경계’나 ‘가르침’이 결코 아니고, 때에 맞도록 사용한다.<sup>9)</sup>

위의 인용문에서 리스지에는 ‘이치’와 ‘가르침’의 상관성과 ‘경계’와 ‘가르침’의 밀접한 관계에 관해 심오한 통찰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도 4중이제설에 관한 해석에서는 『대승현론』의 해석을 근거하고 있는데, 그는 4중의 속제와 진제를 다음과 같이 도식화했다.<sup>10)</sup>

〈그림1〉 리스지에서의 4중 이제 도식



리스지에는 길장의 제1중 이제는 비담사의 실체론적 이제 학설을 대치하기 위한 것이고, 제2중 이제는 성실론사의 가유(假有)와 가공(假空)을 대치하기 위해 ‘非有非空’을 말한 것이라고 설명한다.<sup>11)</sup> 한편, 그는 『대승현론』에 근거해, 제3중 이제와 제4중 이제는 ‘중국 대승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섭론사와 같은 구체적인 학파명을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제4중의 진제를 ‘언어도단 심행처멸(言語道斷心行處滅)의 경지<sup>12)</sup>’라고 설명하면서 ‘非非不有, 非非不空’이라는 구절로 표현한다. 이 ‘非非

9) 李世傑 1999, 184.

10) 李世傑 1999, 185-186.

11) 李世傑 1999, 185.

12) 李世傑 1999, 186.

不有, 非非不空' 구절은 길장의 텍스트에 근거하지 않은 자의적 해석으로, 제3중의 진속이제를 동시에 지양하는 논리를 갖추지 못했으며, 무엇보다 길장이 마지막 제4중 진제를 교문이 아닌 이치로 설정했던 취지에 어긋난다.

### 3. 양혜이난(楊惠南)

양혜이난은 『길장』(1989)에서 '길장의 입장은 진리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으며, 언어로 표현된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방편교설<sup>13)</sup>이라고 설명한다. 그는 초월적 실재를 언어로 가리키는 것은 불가능하고, 오직 잘못된 이해를 논파하는 방법으로 바른 이치가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소위 '파사현정(破邪顯正)'의 방법론에 따라 길장의 사상에 접근했다. 또한 그는 '대상언어(object language)'와 '메타언어(meta-language)'라는 개념을 차용하여 4중이제설을 설명한다. 즉, 앞의 대상언어는 뒤에 오는 메타언어에 의해 부정되지만, 그 메타언어 또한 다음 단계에 출현할 또 다른 메타언어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궁극적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다.<sup>14)</sup> 이러한 양혜이난의 견해는 길장의 4중이제설에 관한 중화권의 대표적인 시각이다.

양혜이난의 4중 이제에 관한 다음 도식은<sup>15)</sup> 4중이제설에 대한 그의 관점을 압축적으로 표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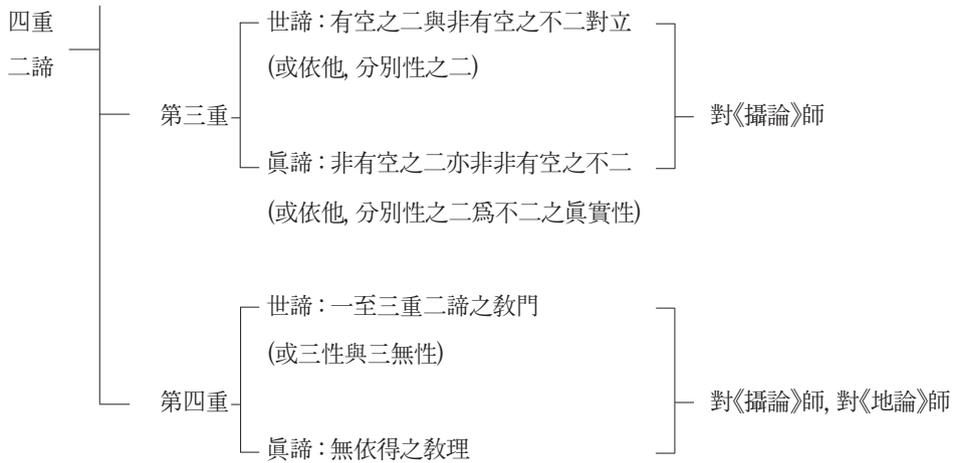
〈그림 2〉 양혜이난의 4중 이제 도식



13) 楊惠南 1989, 204.

14) 楊惠南 1989, 182.

15) 楊惠南 1989, 187.



양혜이난도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4중이제설의 비판대상은 비담, 성론, 지론, 섭론 등으로, 길장이 이들 학파의 잘못된 이해를 부정하기 위해 네 단계의 이제를 세웠다고 명시한다. 그의 해석상의 특징은 제4중 진제를 ‘무의득(無依得)의 교리(教理)’로 서술하고 있는 점인데, 길장이 『중관론소』에서 제4중 진제를 무소의득(無所依得)의 ‘이치(理)’로 정의한 것을 ‘교리(教理)’, 즉 가르침으로 치환시켰다. 이는 그가 이제의 가르침과 진리의 속성을 대립적으로 파악하고, 언어로 표현된 도구적 가르침은 절대적인 진리를 설명할 수 없다고 전제하는 것에서 비롯된다.<sup>16)</sup> 따라서 이는 가르침에 속하는 제4중 진제도 절대적인 진리가 아니며, 결국 제5중 이제, 제6중 이제 등에 의해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시각을 내포한다.

한편, 양혜이난은 각 단계의 비판대상을 앞의 연구들과 달리 규정한다. 그는 제1중 이제가 논파하는 대상으로 비담사와 함께 범부를 포함하고, 제4중 이제의 비판대상으로 섭론사와 함께 지론사를 언급한다. 이는 그가 『대승현론』을 기준으로 4중이제설을 해석하면서도, 길장의 『십이문론소』 등을 참고하여 하나의 이론으로 체계화한 결과다.<sup>17)</sup> 그러나 『십이문론소』에서 길장은 지론사와 섭론사의 이제를 제4중 세제가 아닌 제3중 세제로 보았다.

#### 4. 스창칭(Shi, Changqing, 釋長清)

스창칭은 *Two Truths in Chinese Buddhism*에서 기본적으로 길장의 4중이제설에

16) 楊惠南 1989, 131-132.

17) 楊惠南 1989, 184-185.

대한 기존의 시각을 따르면서도, 각 4중 이제의 비판대상을 재규정한다. 그는 제3중과 제4중 이제의 비판대상이 모두 섭론사라고 본 Koseki의 시각과 제3중의 비판대상은 섭론사고 제4중의 비판대상은 섭론사와 지론사라고 본 양웨이난의 시각을 모두 거부하고,<sup>18)</sup> 제3중의 비판대상은 지론과 섭론 양종을 포함하고 제4중의 비판대상은 섭론 뿐이라고 주장했다.<sup>19)</sup> 그는 『십이문론소』 텍스트에 근거해 제3중 이제의 비판대상을 바로잡는 데 공헌했지만, 제4중 이제에 관해서는 기존 시각으로 회귀해버렸다.

그는 3중이제설은 길장 이전의 선조들의 것이며 4중이제설은 길장의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두 학설이 탄생한 배경이 다르기에, 선조들의 3중 이제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반면, 길장의 4중 이제는 구체적으로 비판대상을 지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20)</sup> 그는 히라이슌에이와 달리, 길장이 초기부터 선대의 삼론사와 견해가 달랐으며, 길장의 초기와 후기 사상은 큰 변화가 없었다고 해석한다.

〈표2〉 스장칭의 4중 이제의 비판대상에 관한 분류<sup>21)</sup>

	길장의 선조	법랑	길장
제1중 이제:	범부.	범부.	비담.
제2중 이제:	이승.	성실론사.	성실론사.
제3중 이제:	유득보살.	지론사와 섭론사.	지론사와 섭론사.
제4중 이제:	언급된 바 없음.	언급된 바 없음.	섭론사.

그는 지론사와 섭론사가 길장의 스승인 법랑의 새로운 경쟁자들이었으며 법랑의 제3중 이제의 비판대상이었다고 주장했는데,<sup>22)</sup> 이 역시 앞의 연구와 구별된다.

### 5. 천핑쿤(陳平坤)

천핑쿤은 2016년 출판된 그의 『大乘玄論』 교감본 서론에서 『대승현론』이 길장의 사상을 대표하는 편찬서라는 입장을 천명했다.

18) Shi 2004, 220-221.

19) Shi 2004, 220-221.

20) Shi 2004, 222.

21) Shi 2004, 227.

22) Shi 2004, 226.

학계에서 혹자는 『대승현론』을 섭산 삼론학파이자 ‘가상대사’라고 불렀던 길장의 친작이 아니라고 여긴다. 그렇지만 길장이 찬술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 어쨌든 그것은 길장의 학품으로 이름 붙여진 현존하는 26권 논서 가운데 대승불교의 법의(法義)에 관한 길장의 인식과 고견을 가장 간명하게 개설한 편찬서[集錄]다.<sup>23)</sup>

그는 『대승현론』이 길장의 친작이 아니라는 학계의 주장이나 실제 길장의 친작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대승현론』이 차지하는 사상적 위상은 변함없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그는 『대승현론』 텍스트에 대한 비판적 성찰 없이 『대승현론』의 문헌의 구성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했는데, 4중 이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다. 특히, 그는 4중이제설에 대한 양혜이난의 관점을 계승했다.

4중 이제와 같은 교문을 설정한 것 역시 이견을 대치하고 타설이 야기할 수 있는 인식의 편파(偏蔽)를 비판하기 위해서 비롯된 것이다. 예를 들면, 제1중 이제는 아비담론사의 현상[事]과 이치[理] 이제를 비판하기 위해 쓰일 수 있으며, 제2중 이제는 성실론사의 공(空)과 유(有) 이제를 비판하기 위해 쓰일 수 있으며, 제3중 이제는 섭론사의 삼성(三性)과 삼무성(三無性) 이제를 대치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으며, 제4중 이제는 섭론사의 이제설을 대치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고, 또 지론사의 안립(安立)과 비안립(非安立) 이제 사상을 비판하기 위해서 쓰일 수 있다.<sup>24)</sup>

천평군은 4중이제설의 핵심은 타 학파의 견해를 대치하기 위한 것으로, 네 단계가 구체적으로 각각 비담, 성실, 섭론, 섭론 및 지론을 겨냥하여 세워졌다고 보는데, 이는 양혜이난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처럼 선행연구에서는 길장이 타 학파, 특히 지론사나 섭론사와 같은 유식논사의 이제설을 대치하기 위해 4중 이제를 세웠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전적으로 『대승현론』의 4중이제설을 토대로 구축된 것이다. 따라서 길장의 친작이 아닌 『대승현론』에 나타난 4중 이제 해석이 실제 길장의 4중이제설에 부합하는지 아닌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23) 陳平坤 2016, 16.

24) 陳平坤 2016, 31-32.

## IV. 『대승현론』의 4중이제설

오랫동안 길장의 저작으로 간주되었던 『대승현론』은 길장의 저작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내부에 여러 다양한 성격의 텍스트가 혼재한 후대 편집물로서,<sup>25)</sup> 그 가운데 무엇이 길장의 사상이고 무엇이 아닌지 전면적 검토가 필요한 텍스트다. 『대승현론』 가운데 특정 텍스트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 길장의 사상을 왜곡시키기도 하는데, 4중이제설 관련 텍스트가 대표적인 예다.

문: 무슨 까닭으로 이 4중 이제를 만들었는가?

답: 비담종의 사리 이제(事理二諦)를 대치하여, 첫째 층위의 공유 이제(空有二諦)를 밝혔다.

둘째, 성실론사의 공유 이제를 대치하여, 너희의 공유 이제는 나의 속제이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님이야말로 진제이므로, 둘째 층위의 이제가 있다.

셋째, 대승사의 의타(依他)와 분별(分別)의 둘은 속제이고, 의타는 무생(無生)이고 분별은 무상(無相)이니 둘이 아닌[不二] 진실성(眞實性)이 진제라는 주장을 대치하여, 지금 둘[二]이거나 둘이 아님[不二]은 모두 삼론종의 속제이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이야말로 진제이므로, 셋째 층위의 이제가 있다.

넷째, 대승사가 다시 삼성(三性)은 속제이고, 안립제(安立諦)가 진제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의 의타, 분별의 둘과 진실의 둘이 아님이라는 안립제, 그리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닌 삼무성(三無性)의 비안립제(非安立諦)는 모두 삼론종의 속제이고, 언망려절(言亡慮絕)이야말로 진제다.<sup>26)</sup>

위의 『대승현론』 인용문은 4중 이제가 각각 비담종의 사리 이제, 성실론사의 공유 이제, 대승론사의 의타 및 분별과 진실성 이제, 대승론사의 삼성과 삼무성 이제를 대치하기 위해 삼론종에서 이들의 이제보다 한 단계 상위인 이제를 시설한 것이라고 적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중이제설에 관한 선행연구는 대부분 『대승현

25) 조윤경 2014, 326-333.

26) 『大乘玄論』卷1(T. 45, 15c13-23): 問, 何故作此四重二諦耶? 答, 對毘曇事理二諦, 明第一重空有二諦. 二者, 對成論師空有二諦, 汝空有二諦是我俗諦, 非空非有方是真諦. 故有第二重二諦也. 三者, 對大乘師依他分別二爲俗諦, 依他無生, 分別無相, 不二眞實性爲眞諦. 今明若二若不二, 皆是我家俗諦, 非二非不二, 方是真諦. 故有第三重二諦. 四者, 大乘師復言三性是俗, 安立諦爲眞諦. 故今明汝依他分別二, 眞實不二是安立諦, 非二非不二, 三無性非安立諦, 皆是我俗諦; 言忘慮絕方是真諦.

론』의 이 구절을 기준으로 삼아, 기타 문헌에 언급된 4중이제설 혹은 3중이제설의 내용을 통합적으로 이해했다. 다만 『대승현론』에서 대승사라고 통칭한 것에 대해, 히라이슌에이는 ‘섭론사’로 판단하였고, 양혜이난이나 천핑쿤은 제3중 이제에서는 ‘섭론사’지만 제4중 이제에서는 ‘섭론사와 지론사’라고 판단했고, 스창칭은 제3중에서 대승사는 ‘섭론사와 지론사’지만 제4중에서 대승사는 ‘섭론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학자들의 이러한 세부적인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승사’가 ‘섭론사’ 혹은 ‘지론사와 같은 유식논사이며, 길장이 이들에 대항하기 위해 제3중 혹은 제4중 이제를 세웠다고 보는 큰 틀은 공통된다. 나아가 그들은 4중이제설에 역사적 의미를 부여했는데, 길장이 삼론종의 전통적 3중이제설에 머물지 않고 만년에 다시 한 단계를 추가해서 4중이제설로 발전시켜야 했던 까닭은 유식학(섭론종과 지론종)이 대두한 중국불교의 시대적인 요청 때문이라고 분석했다.<sup>27)</sup>

민약 전통적인 견해대로 『대승현론』을 길장의 만년 저작으로 간주하면, 필연적으로 길장의 4중이제설이 타 학파의 잘못된 이제 이해를 대치하기 위한 학설이라는 프레임에 귀결된다. 또한, 4중이제설은 유식논사의 이제설을 제3중과 제4중에서 비판한 학설로 간주할 수 있으므로, 길장은 후기에 전통적인 3중이제설을 버리고 4중이제설로 전향한 것이 된다. 비록 현재까지 『대승현론』의 편자가 누구인지는 분명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근래의 연구에 따르면 길장 자신이나 제자의 편집이 아니라 그들과 시공간이 분리된 후대인이 편집한 문헌임은 분명하다.<sup>28)</sup> 그리고 위의 인용문은 『대승현론』을 제외하면 여타 어느 문헌에서도 출처가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길장의 다른 저작에 나오는 관련 내용과 면밀하게 비교하고 검토해서 길장의 사상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할 것이다.

본고는 『대승현론』의 편자 문제를 재론하지는 않을 것이며, 『대승현론』의 해석을 근거로 길장이 섭론사나 지론사를 대치하기 위해서 4중이제설을 고안했다고 보는 해석이 타당한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고자 한다.

## V. 4중이제설의 교화대상과 타 학파

삼론종의 3중 이제와 4중 이제는 여러 다양한 함의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방편으

27) 히라이슌에이 2020, 672-675; 楊惠南 1989, 180.

28) 조윤경 2014, 354-355.

로서, 그 중층적 체계는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다. 그러나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에 다양한 해석 체계가 병존하고 있다는 사실은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고, 다양한 맥락을 하나로 통일하여 한 가지 통합적 체계로 해석하는 연구가 일반적이었다.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의 여러 함의 가운데 각 단계의 교화대상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함의가 있다. 하나는 3중 이제와 4중 이제의 각 단계가 모두 '한 중생을 대상으로 하여 점진적으로 교화시키는 이제가 되는 경우고, 다른 하나는 각 단계가 각기 다른 근기를 대상으로 한 이제를 나타내는 경우다.<sup>29)</sup> 길장의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과 같은 중층적 이제 학설에서 타 학파의 이제설을 비판하는 경우, 이 두 가지 함의 중 어느 하나로 환원시키기 어렵지만, 기존에는 타 학파를 '여러 근기의 교화대상'으로 간주했다. 그러나 길장이 기술한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의 각 단계에서 대치하는 교화대상은 '범부', '이승', '보살'로 나타나며, 이 세 부류의 교화대상과 타 학파의 논사들 간에는 서로 대응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 오직 『대승현론』만이 당시 특정 학파의 논사들을 4중 이제의 직접적인 교화의 대상으로 설정했지만, 길장의 다른 문헌에서 타 학파의 이제설을 비판한 구절을 살펴봐도, 『대승현론』의 관련 논의를 길장의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 1. 중층적 이제설의 교화대상

### (1) 3중이제설의 교화대상 : 『이제의』와 『법화현론』을 중심으로

우선 길장의 3중이제설을 다루고 있는 문헌으로 『이제의』와 『법화현론』이 있다. 두 문헌에서 세 단계의 가르침이 각기 다른 근기를 대상으로 할 때, 길장은 오승(五乘), 즉 인승, 천승, 성문승, 연각승, 보살승을 세 가지 인연(三緣)으로 나눈다. '인승'과 '천승'은 범부에 해당하고, '성문승'과 '연각승'은 이승에 해당하고, '보살승'은 유득보살(有得菩薩)로서, 3중 이제의 각 층위는 범부, 이승, 보살에 각각 대응되는 가르침이다.

오승의 중생을 위해서 이 3중 이제(三種二諦)를 설법한다. 처음은 범부를 인도하여 유를 버리고 공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유는 속제고 공이 진제라고 설명한다. 다음은 이승인을 인도하여 중도를 깨닫게 하려고, 공과 유는 모두 속제고 중도가 진제라고 설명한다. 셋째,

29) 조윤경 2018, 108.

보살이 중도와 치우침을 모두 버리게 하려고, 치우침이나 중도는 모두 속제고 중도도 아니고 치우침도 아닌 것이야말로 진제라고 설명한다. 그러한 까닭은 보살이 범부와 이승은 양변에 얽매었으나 보살의 마음은 중도에서 노닌다고 말하는데, 이 견해를 논파하기 위해서 양변을 멀리 떠나서 중도에도 집착하지 않음을 밝힌 것이다.<sup>30)</sup>

『법화현론』에서는 범부, 이승, 보살이 저마다 유, 공, 중도에 집착하여 현상태에 안주하는데, 3중이제설은 이 세 대상의 집착을 논파하여 이들이 유득의 마음을 버리고 무득으로 나아가게 하려고 설법한 이제라고 풀이한다. 다시 말해, 제1중 이제는 ‘존재한다’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는 범부의 인식을 해방하기 위해, ‘유는 속제고 공이 진제’라고 설법한다. 제2중 이제는 이승의 공견(空見)을 대치하기 위해, “공과 유는 모두 세제(속제)고 공도 아니고 유도 아니고[非空非有] 범부도 아니고 성인도 아닌 것[非凡非聖]이야말로 제일의제<sup>31)</sup>”라고 설법한다. 한편, 보살 가운데 중도에 집착하는 마음을 일으키는 보살이 있는데, 이들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 마지막 제3중 이제를 제시한다. 『이제의』에서는 이 마지막 단계의 이제가 보살의 어떠한 집착을 대치하기 위해 어떠한 설법을 펼친 것이었는지에 대해 더 자세히 밝히고 있다.

세 번째 [이제]는 유득보살(有得菩薩)을 논파하기 위한 것이다. 유득보살은 “범부는 유를 보고, 이승은 공에 집착한다. 범부는 생사에 빠지고, 이승은 열반에 집착한다. 나는 제법은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니고, 생사도 아니고 열반도 아님을 이해한다”라고 말한다. 이러한 까닭에 유(有)와 무(無)인 둘[二]과 비유무(非有無)인 둘이 아님[不二], 생사와 열반인 둘[二]과 생사도 아니고 열반도 아닌 둘이 아님[不二]이 모두 세제이며, 진속도 아니고[非眞俗] 생사열반도 아니고[非生死涅槃] 진속이 아님도 아니고[非非眞俗] 생사열반이 아님도 아닌 것[非非生死涅槃]이야말로 제일의제라고 밝힌다.<sup>32)</sup>

30) 『法華玄論』卷4(T. 34, 396b29-c7): 五者, 爲五乘衆生, 說此三種二諦. 初, 爲引凡夫, 令捨有入空, 故明有是俗; 空爲眞. 次, 爲引二乘人, 欲令悟中道, 故說空有皆俗. 中道爲眞. 三, 爲菩薩, 令中偏俱捨, 故若偏若中, 並皆是俗. 非中非偏, 此乃爲眞. 所以然者, 菩薩之人, 謂凡夫二乘滯於二邊, 而菩薩心遊中道, 爲破此見故, 明遠離二邊, 不著中道也.

31) 『二諦義』卷1(T. 45, 91a22-24): 此之空有並是世諦, 若非空非有, 非凡非聖, 乃是第一義.

32) 『二諦義』卷1(T. 45, 91a26-b3): 第三重爲破有得菩薩. 有得菩薩云, ‘凡夫見有, 二乘著空. 凡夫沈生死, 二乘著涅槃. 我解諸法非有非無, 非生死非涅槃. 爲是故明有無二非有無不二, 生死涅槃二非生死非涅槃不二, 並是世諦, 若非眞俗非生死涅槃非非眞俗非非生死涅槃, 乃是第一義諦也.’

유득보살은 범부가 집착하는 생사와 이승이 집착하는 열반은 모두 떠났지만, 생사도 아니고 열반도 아닌 중도라는 관념에 다시 사로잡힌 보살이다. 이 유득보살의 집착을 대치하기 위해, “유(有)와 무(無)인 둘[二]과 비유무(非有無)인 둘이 아님[不二], 생사 열반인 둘[二]과 생사도 아니고 열반도 아닌 둘이 아님[不二]이 모두 세제이며, 진속도 아니고 생사열반도 아니고 진속이 아님도 아니고 생사열반이 아님도 아닌 것이야말로 제일의제”라고 설법해서, 이제와 중도의 이분법적 사유를 초월하게 한 것이 셋째 단계의 이제다.

정리하면, 길장의 3중이제설은 범부, 이승, 보살을 각 단계의 교화대상으로 삼아, 각 대상이 집착하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세 가지 방편으로 인도했다.

## (2) 4중이제설의 교화대상: 『십이문론소』를 중심으로

전통적인 3중이제설과 더불어, 길장이 창안한 4중이제설은 비교적 늦게 찬술된 『중관론소』와 『십이문론소』에 출현한다. 『십이문론소』에서는 “첫 단계의 이제는 범부를 위한 것이고, 다음 단계는 이승을 위한 것이고, 뒤의 두 단계는 보살을 위한 것이다”<sup>33)</sup>라고 밝히고 있어서, 4중이제설도 기본적으로 3중이제설과 동일하게 범부, 이승, 보살을 교화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중관론소』에 나타난 4중이제설은 『십이문론소』와 다른 교화대상을 제시하고 있다. 길장은 이곳에서 4중 이제를 상근기의 보살, 중근기의 보살, 하근기의 보살과 연결시킨다. 구체적으로 상근기의 보살은 제1중 이제만 듣고도 깨달을 수 있고, 중근기의 보살은 제1중 이제만 듣고서 깨닫기는 역부족이나 제2중 이제까지 듣고서 깨달을 수 있고, 하근기의 보살은 앞의 두 단계에서는 깨닫기 힘들지만 제3중 이제를 듣고서부터 비로소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다.<sup>34)</sup>

그러나 이와 같이 세 가지 근기의 보살로 교화대상을 분류한 4중 이제 해석은 앞의 3중이제설이나 『십이문론소』에 나타난 4중이제설과 맥락이 전혀 다르므로, 같은 논의 선상에서 다루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앞에서 범부, 이승, 보살은 각 이제를 통해 대치할 교화대상의 집착과 사견(邪見)의 종류를 중심으로 한 분류였다면,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보살은 현재 지닌 사견의 종류와는 상관없이, 보살이 깨달음을 성취할 것을 전제로 하여 각각의 근기에 따라 누가 더 단번에 깨닫는지를 분류한 것이다. 물론, 『중

33) 『十二門論疏』卷1(T. 42, 184a12-13): 又初重二諦爲凡夫, 次重爲二乘, 後二爲菩薩.

34) 『中觀論疏』卷2(T. 42, 28b10-13): 問, 何故作此四重二諦耶? 答, 利根聞初, 卽悟正道, 不須後二. 中根聞初不悟, 聞第二方得入道. 下根轉至第三, 始得領解也.

관론소』의 분류법은 길장의 4중이제설이 결코 하나의 의미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4중이제라는 동일한 형식이 다양한 맥락에 적용됨을 시사하는 의의가 있다.

따라서 『중관론소』의 특수한 맥락을 제외하면, 길장의 4중이제설에서 대치하는 교화대상은 변함없이 범부, 이승, 보살이다. 그렇다면 범부, 이승, 보살은 『대승현론』에서 언급한 비담사, 성실론사, 대승사(섭론사, 지론사)인가? 이에 답하기 위해, 길장이 4중이제설(혹은 3중이제설)에서 타 학파의 이제 학설에 대해 어떤 견해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 2. 길장의 중층적 이제설과 타 학파의 이제설

길장의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은 타 학파의 이제설을 비판하는 기능도 겸하고 있다. 이때 길장의 초점은 타 학파를 자신의 교화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학파의 이제설이 삼론종의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에 비추어 볼 때 어느 단계에 해당하는지 견주어보고, 이를 통해 그들의 이제설이 상위 단계의 이제설을 갖추지 못한 불완전한 학설이라고 비판하는 데 있다. 길장의 목적은 삼론종의 이제설이 타 학파에서는 다루지 못한 상위의 이제설까지 포함하는 완전한 이론체계를 지니고 있음을 증명해 보이는 것이다.

### (1) 3중이제설에 나타난 타 학파의 학설 비판

길장은 3중이제설의 비교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 기존 성실학파의 이제설은 기껏해야 삼론종의 3중이제설에서 앞의 두 단계에 해당하는 2중 이제설밖에 없다고 비판한다.

지금 유행하는 학문은 삼가(三假)가 있는 것은 세제이고 삼가가 공한 것은 진제라고 밝히는데, 오직 이 뜻만 있어서 [삼론종의] 초문의 의미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을 인용해서, 삼가가 공하다거나 있다는 것은 모두 속제고 [삼가가] 공하지도 않고 있지도 않음[非空有]이 진제라고 밝혔다. [그러자] 그들은 “나는 별도로 이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진제도 아니고 속제도 아닌 중도도 있다”라고 말한다. 따라서 지금 [삼론종에서는] “이제와 중도도 속제일 따름이고,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이야말로 진제다”라고 말한다.<sup>35)</sup>

35) 『法華玄論』 卷4(T. 34, 396c7-12): 第六, 卽世學者, 明三假有爲世諦, 三假空爲眞諦, 唯有此義, 但初門意耳. 是故引之, 明三假空有皆俗, 非空有爲眞. 彼卽云, “我自有一二諦, 復有非眞俗爲中道”. 是故今云, “二諦與中道, 亦

『법화현론』에서 길장이 ‘지금 유행하는 학문’이라고 한 것은 성실학을 가리킨다. 그는 먼저 성실론사들이 ‘삼가가 있다’고 하는 것과 ‘삼가가 공하다’고 하는 것은 삼론종의 3중이제설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하는 제1중 이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평가한다. 『이제의』에서는 “기존의 성실론사들은 삼가(三假)는 세제고 사망(四忘)은 진제라고 설명하였다. 지금 이 이제는 삼론종에서 첫 단계의 이제임을 밝힌다.”<sup>36)</sup>고 말해, ‘삼가가 있는 것과 ‘삼가가 공한 것’ 대신에 ‘삼가와 ‘사망’이라고 표현했지만, 성실학과의 이제설을 삼론종의 제1중 이제에 자리매김한 점은 동일하다.

길장은 상대 학설을 제1중 이제로 규정한 다음, 성실학과의 진속이제를 뛰어넘는 제2중 이제를 제시한다. 『이제의』에서는 “두 번째 단계의 이제에서 진제나 속제는 세제고, 진제가 아니거나 속제가 아닌 것은 제일의제다. 그렇다면 너희의 이제는 삼론종의 세제다.”<sup>37)</sup>라고 주장한다. 그는 성실론사의 공유 이제설은 더 높은 차원인 제2중 이제의 시각에서 보면, 결국 세제(속제)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폄하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성실론사가 비판에 응수하기 위해 자신도 ‘진제도 아니고 속제도 아닌 중도가 있다고 반박하지만, 길장은 이 역시 결국 삼론종의 속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폄하한다.

또한 세 번째 단계의 이제에서는 저들의 이제나 중도가 모두 지금 [삼론종]의 세제가 된다고 포섭한다. 왜 그런가? 앞의 두 번째 단계에서 둘[二]이 세제이고 둘이 아님[不二]이 진제인데, 너희의 이제는 다만 삼론종의 세제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저들은 “우리 역시 진제도 아니고 속제도 아닌 중도의 뜻이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까닭으로 세 번째 단계에서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은 세제이고, 너희의 이제나 중도는 다 삼론종의 세제임을 밝힌다.<sup>38)</sup>

『이제의』에서는 보다 상세한 설명을 제공하는데, 앞의 인용문들에서 당시 성실론사도 이제를 초월한[不二] 중도 학설을 제시했으며 삼론종에서도 이 사실은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길장은 이제와 중도에 관한 성실론사의 학설도 제2중 이제에 지나지

是俗諦耳，非二非不二，乃爲眞也。”

36) 『二諦義』卷1(T. 45, 91b8-10): 由來人明三假是世諦，四忘是眞諦。今明此之二諦是我家初節二諦。

37) 『二諦義』卷1(T. 45, 91b11-13): 今過汝有兩重二諦也。第二節二諦，若眞若俗爲世諦，若非眞若非俗爲第一義諦。若爾，汝二諦是我家世諦也。

38) 『二諦義』卷1(T. 45, 91b13-18): 又第三節，攝彼若二諦若中道竝是今世諦。何者？前第二節明二爲世諦，不二爲眞諦，汝二諦但是我家世諦也。彼即云，“我亦有非眞非俗中道義”。爲是故第三節，明二，不二爲世諦，汝若二諦若中道，悉是我家世諦。

않는다고 규정하고, 삼론종의 세 번째 층위의 이제에서 보면 결국 세제에 포섭된다고 비판한다. 이처럼 3중이제설의 중층적 구조 속에서 타 학파의 ‘진속이제나 ‘중도’는 이름에 부합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제(속제)로 전락한다.

한편, 제3중 이제는 삼론종에서 ‘둘도 아니고 둘이 아님도 아님[非二非不二]’의 가르침이 탄생한 사상사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 삼론종은 당시 성실학으로 대표되는 타 교학과 차별화된 이론체계를 정립하면서 ‘이제’와 ‘중도’를 초월하는 상위의 개념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었다. ‘이제’와 ‘중도’는 삼론종의 핵심 개념으로 그 자체 모든 이론을 통섭할 수 있는 개념이지만, 타 학파의 학설에서도 ‘이제’와 ‘중도’는 중요시되었으므로, 삼론종에서는 이들 이론과 차별화를 통해 삼론학의 우월성을 증명해야 했다. 따라서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는 삼론종의 특수한 정체성을 반영하는 구절로, 길장도 이러한 정신을 계승해서 ‘둘[二]과 ‘둘이 아님[不二]’의 양면을 초월적으로 지양한 깨달음을 강조한다.

종합하면, 삼론종 3중이제설의 중층적 구조는 당시 성실학파의 이제설에 대한 이론적 우위를 점하고자 하는 의도를 겸하고 있었고, 제2중 이제와 제3중 이제를 통해 성실학파의 ‘양중 이제’를 집중적으로 겨냥했다. 그렇지만 『이제의』와 『법화현론』의 3중 이제설에서 성실학파 이외의 이제설, 특히 비담종의 이제설이나 유식학파의 이제설을 견제하는 내용은 전무하다.

## (2) 4중이제설에 나타난 타 학파의 학설 비판

후기 4중이제설에서 길장은 타 학파의 이제설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기존의 성실론사가 오직 1중 이제만 있는 것을 겨냥하기 위해, 지금 [삼론종에서] 이 4중 [이제의] 생각을 밝힌다.”<sup>39)</sup>라는 『중관론소』 구절에서, 3중이제설보다 4중이제설에서 성실학파의 이제설을 더욱 낮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초기에는 성실론사의 이제설이 두 단계의 복합적 구조를 갖춘 2중 이제라고 평가했지만, 『중관론소』에서는 그들의 이제설을 1중 이제로 규정한다. 여기서 길장은 성실론사의 이제설이 단층적인 반면, 삼론사의 이제설은 중층적이고 복합적인 체계를 갖추었다는 자신감을 드러낸다.

앞의 3중이제설과 마찬가지로 『중관론소』에서 길장은 성실론사 이외의 타 학파의 이제설에 관해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으나, 『십이문론소』에서는 성실론사 외에도 지론사와 섭론사의 이제설을 언급하고 있다.

39) 『中觀論疏』卷2(T. 42, 28b24-25): 又爲對由來但有一重二諦, 故今明此四重意.

문: 어째서 적절한 때[適時]에 맞추어 써야 하는가?

답: 스승께서 이 [4중 이제] 생각을 만든 것은 두가지 병에 대치하기 위해서이다.

하나는 성실론사의 유는 세제이고 공은 진제라는 것에 대해서, 공유(空有)는 모두 세제고 비유비공(非有非空)이야말로 제일의제니, 너희의 진속은 모두 나의 속제일 뿐이라고 밝힌다. [성실론사의 공유는] 진제를 얻지 못했으니 속제도 될 수 없지만, 지금 [삼론종에서는] 진제와 속제를 구족한다.

[다른 하나는] 십지론사와 섭론사가 '법계의 체용이 있어서 중도가 체(體)고 공유가 용(用)이라고 하는 것'과 '공유(空有)는 이제고 공유가 아님[非空有]이 비안립제(非安立諦)라고 하는 것에 대치하기 위해서, 지금 [삼론종에서는] 이것이 모두 나의 제3중 세제일 뿐이라고 밝힌다. [지론사와 섭론사는] 진제를 얻지 못하였으니, 어찌 속제가 있을 수 있겠는가!<sup>40)</sup>

위는 4중이제설에서 제4중 이제가 구경(究竟)이지만, 상황에 따라 나머지 단계의 이제도 적절히 쓸 수 있다는 내용에 이어지는 문답이다. 『십이문론소』에서 성실학과의 이제설을 비판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4중이제설이 성실학과 및 지론사와 섭론사의 이제설을 대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여기서 길장은 『중관론소』의 해석과 마찬가지로, 성실론사의 이제를 유와 공, 즉 제1중 이제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제2중 이제를 제시해서, 성실론사의 공유 이제가 모두 삼론종의 속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다음으로, 길장은 지론사와 섭론사의 두 가지 이제 형식을 제시했다. 첫째, 지론사의 법계(法界)에서 '중도는 본체(體)고 '공유'는 작용(用)으로, '중도'는 제2중 진제에 해당하고 '공유'는 제2중 속제에 해당한다. 둘째, 섭론사는 '공유'를 이제로 보고 '공유가 아님[非空有]'을 비안립제(非安立諦)로 보는데, 전자는 제2중 속제에 해당하고 후자는 제2중 진제에 해당한다. 따라서 그들의 '이제'와 '중도'를 대치하기 위해 제3중 이제를 제시해서, 상대의 이제가 모두 삼론종의 속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편, 『십이문론소』에서는 타 학파의 이제설이 기실 속제의 자격도 갖추지 못했다고 평가한다. 위의 인용문에서 길장은 타 학파의 이제가 상위 단계의 시각에서 진제를 결여했음을 표현하기 위해 임시로 '속제'라고 지칭한다. 하지만 본질적 차원에서 진제와

40) 『十二門論疏』卷1(T. 42, 184a5-12): 問, 云何適時而用? 答, 師作此意, 爲對二病, 一對成實師, 有是世諦, 空是真諦, 故明空有, 皆是世諦, 非有非空, 方是第一義, 汝之真俗, 皆是乘(我的 오기)之俗耳. 既不得真, 亦不成俗, 今乃具足. 爲對十地及攝論師, 有法界體用, 以中道爲體, 空有爲用, 空有爲二諦, 非空有爲非安立諦故, 今明此皆是我之第三重世諦耳. 既未得真, 何由有俗!

속제는 인연의 관계이므로 진제를 갖추지 않은 속제는 성립할 수 없기에, 타 학파는 이제 가운데 어느 것도 갖추지 못했다(진제를 얻지 못했으니, 속제도 될 수 없다.)고 정정한다. 길장은 사람들이 4중이제설을 듣고 타 학파의 이제설이 4중이제설에서 낮은 차원의 이제 학설은 갖추었으니, 제1중 이제 혹은 제2중 이제로서 '부분적 진리'라고 여길 가능성을 전면 차단한다. 따라서 『십이문론소』에서 타 학파의 이제설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길장은 3중이제설에서 성실론사가 2중의 중층적 이제설이 있다고 인정했던 것과 달리, 후기 『중관론소』와 『십이문론소』에서는 오직 1중의 단층적 이제설만 있다고 평가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성실론사의 이제설을 폄하한 것이나, 한편으로 지론종과 섭론종의 활약이 두드러진 시대적 배경 속에서 이들의 이제설에 제2중 이제의 자리를 내주기 위한 수순이라고 가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설령 이 가정이 맞다고 해도, 섭론종과 지론종의 학설이 대두되었던 시대적 요청에 의해 길장이 4중이제설을 제시했다는 기존의 시각은 타당하지 않다.<sup>41)</sup> 왜냐하면 길장을 비롯한 삼론사에게 있어 타 학파의 이제설은 어디까지나 제2중 이제의 위치를 넘어설 수 없으며, 그것은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에 시종일관 공통된다. 그러므로 타 학파의 이제설을 상위의 이제로써 제압하기 위해서라면, 삼론종의 전통적인 3중이제설로도 충분하다. 오히려 “모든 생각 가운데 [가장] 뒤의 문이 구경(究竟)이지만, 적절한 때[適時]에 맞추어 쓸 수 있다.”<sup>42)</sup>는 『십이문론소』의 4중이제설 해석을 참고하면, 길장은 타 학파의 낮은 층위의 이제설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구경의 제4중 이제가 아닌 상대적으로 낮은 층위의 이제가 필요하다고 역설한다. 따라서 길장이 제4층을 한 겹 더 쌓아 올려 4중이제설을 구축한 까닭은 유식논사들의 이제설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 삼론종 사상의 내재적 발전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오직 『대승현론』만이 타 학파의 이제설에 제3중 이제에 상응하는 자리를 내주고 있고, 이는 길장의 전체 사상과 모순된다. 『대승현론』에서는 섭론사의 비안립제를 삼성을 넘어선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 즉 제3중 진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했으나, 앞의 『십이문론소』에 따르면, 비안립제는 공유가 아님[非空有], 즉 제2중 진제에 해당한다. 길장은 일관되게 섭론종의 비안립제를 '非有非無'인 '중도'로 해석하는데, 예를 들면 『승만보굴』에서 “안립제는 이제관이고, 비안립제는 중도관이다.”<sup>43)</sup>라고 주장한

41) 히라이순에이 2020, 672-675; 楊惠南 1989, 180.

42) 『十二門論疏』卷1(T. 42, 184a3-4): 諸意中以後門爲究竟, 可適時而用之.

43) 『勝鬘寶窟』卷2(T. 37, 53a24-26): 又『佛性論』云, “二乘住安立諦, 故不能斷, 佛住非安立諦, 故能斷”. 安立是二

다. 따라서 섭론종의 안립제와 비안립제는 길장의 제2중 이제에 해당한다.

또한, 길장은 『중관론소』에서 당시 섭론 등을 공부하는 자들이 두 단계의 이론만을 갖추고 있다고 설명한다. 첫째 단계는 분별, 의타의 이성(二性)은 진실되지 않으나[不實], 분별이 무상하고 의타가 무생함은 진실성(眞實性)이라는 것이다. 둘째 단계는 분별, 의타, 진실의 삼성은 진실되지 않으나[不實], 삼무성은 진실하다는[眞實] 것이다.<sup>44)</sup> 이것은 4중이제설에서 제1중 이제와 제2중 이제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대승현론』에서는 제2중 이제와 제3중 이제로 승격시키는 오류를 범한다. 나아가, 길장은 섭론사가 ‘비삼성비삼무성(非三性非三無性)’을 말하지 않았다고 천명했는데,<sup>45)</sup> 이는 그들이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를 포함한 3중이제설 갖추지 못했다는 『십이문론소』의 관점과 상통한다.

삼론종의 중층적 이제설은 타 학파와 관련하여 그들이 몇 단계의 복합적 이제 학설을 갖추었는지를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비록 『십이문론소』에서는 타 학파의 학설이 속제도 갖추지 못했다는 말로 이들의 전체 이제설의 가치를 무화시키는 목소리를 냈지만, 원칙적으로 보면 타 학파의 중층적 이제설도 삼론의 중층적 이제설과 마찬가지로 제1중 이제부터 쌓아 올릴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상층인 제2중, 제3중 이제설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부에 제1중 이제 학설이 존재해야 한다. 그러므로 만약 섭론사의 ‘삼무성(三無性)의 비안립제(非安立諦)’를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 즉 제3중 진제와 연결한 『대승현론』의 주장이 논리적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제2중의 속제인 의타와 분별이 각각 제1중의 진제와 속제가 되어야만 한다. 그런데 이는 삼론종의 공 사상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분별성과 의타성을 서로 분리하지 않는 섭론종의 학설에도 부합하지 않는다.<sup>46)</sup> 이와 달리, 섭론종에서 진실성은 분별과 의타 두 자성의 부정을 통해 획득되므로, 진실성이 진제라면 두 자성은 속제로 분명히 구분된다.<sup>47)</sup> 진제(眞諦 Paramārtha, 499~569)의 『삼무성론(三無性論)』에서도 非有非無(非有性非無性)='無性性'='非安立諦'임이 명시하고 있는데,<sup>48)</sup> 『대승현론』의 편지는 당시 중국불교 여러 학파의 이제

諦觀, 無安立諦是中道觀.

44) 『中觀論疏』卷8(T. 42, 127a24-29): 又將此文望今攝大乘等學者, 備此二門, 分別依他二性是名不實, 分別無相, 依他無生, 名眞實性, 則同下根人義. 若以三性爲不實, 三無性理稱爲眞實, 是中根人義. 彼不說非三性非三無性, 故無上根人義也.

45) 『中觀論疏』卷8(T. 42, 127a28-29).

46) 안성두 2014, 349-350.

47) 안성두 2014, 354.

48) 『三無性論』卷1(T. 31, 867c17-26): 此一無性, 眞實是無, 眞實是有. 眞實無, 此分別, 依他二有, 眞實有, 此分別, 依他二無, 故不可說有亦不可說無. 不可說有如五塵, 不可說無如免角, 卽是非有性非無性, 故名無性性. 亦

설과 무관하게, 제2중 진제(非有非無)인 비안립제를 제3중 진제(非二非不二)로 오관했다.

따라서 『대승현론』에 근거하여 길장이 지론사 혹은 섭론사의 이제설을 삼론종의 대표적인 학설인 3중이제설의 궁극인 '비이비불이(非二非不二)'까지 높였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의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 길장이 4중이제설에서 마지막 '언어와 사고가 끊어진 무소의득(無所依得)의 이치'를 제외한, 언어로 표현 가능한 최종 단계의 가르침을 유식논사들에게 시설했다고 보는 해석도 무리가 따른다. 그리고 이와 같은 오해를 통해 선대 스승들의 3중이제설과 길장의 4중이제설 간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호도되었고, 초기 3중이제설은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학설로 여겨졌다.

이로써 『대승현론』의 4중이제설이 길장의 4중이제설을 곡해한 것은 분명하다. 그렇다면 기존의 시각처럼 길장의 중층적 이제설의 교화대상인 범부, 이승, 보살에 『대승현론』에서 언급한 비답사, 성실론사, 대승사(섭론사, 지론사)가 대응된다고 볼 수는 없을까? 예를 들면, <그림2>에서 양혜이난은 제1중 이제의 교화대상으로 범부와 비답종을 함께 두고 있으며, <표2>에서 스장칭은 4중 이제의 교화대상(범부, 이승, 보살)과 타 학파(비답, 성실, 지론, 섭론)를 통합된 하나의 해석으로 묶고 있다. 양혜이난은 범부는 아유(我有), 법유(法有)라고 생각하고, 비답종은 아공(我空), 법유라는 차이는 있지만, '아유'든지 '법유'든지 간에 '유'라고 인식한다는 점에서 공통되기에 제1중 이제의 교화대상이라고 판단했다.<sup>49)</sup> 앞에서 제4중 이제가 타 학파의 이제설과 무관하다는 사실은 밝혀졌으나, 제3중 이제에서 교화대상인 보살과 유식논사를 대응시킬 수는 없을까?

하지만, 길장의 중층적 이제설에서 당시 타 학파 논사들이 교화대상으로 설정되었던 적은 없었다. 4중이제설도 3중이제설의 확장된 이론으로서, 당시 타 학파의 이제설을 부정적인 모델로 비판하는 데 중점이 있고, 이들을 교화대상으로 하여 깨달음으로 이끌려는 온정적 태도는 잘 보이지 않는다. 특히, 『중관론소』에서 길장은 타 학파의 학설과 관련해서는 성실학파의 이제설을 1중이제설로 규정하는 데 그쳤지만, 교화대상의 근기와 관련해서 제1중 이제는 날카로운 근기(利根)를 지닌 보살이 제1중 이제만 듣고도 정도(正道)를 깨닫기에 나머지 두 단계가 불필요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이 두 가지 해석을 통합할 수 있는 연결고리가 전혀 없다.

다음으로, 『십이문론소』에서 4중이제설이 '두 가지 병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

以無性爲性名無性性，卽是非安立諦。若是三性並是安立，前兩性是安立世諦，體實是無安立爲有故，眞實性卽是安立眞諦，對遣二有安立二無名爲眞諦。還尋此性離有離無，故非安立。三無性皆非安立也。

49) 楊惠南 1989, 185.

는 위의 인용문에서, 이 두 가지 병은 ‘성실학파의 이제설’ 및 ‘지론사와 섭론사의 이제설’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이야말로 『대승현론』의 해석과 가장 유사한 것이다. 또한 『십이문론소』에서는 제1중 이제는 범부를 위한 것이고, 제2중 이제는 이승을 위한 것이고, 제3중과 제4중 이제는 보살을 위한 설법이라고 별도로 4중이제설의 교화대상을 명시한다.<sup>50)</sup> 얼핏 보면, 위 인용문에 언급된 성실론사와 이승을 모두 제2중 속제로, 지론사와 섭론사와 보살을 제3중 속제로 간주해도 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십이문론소』에서 타 학파의 이제설에 진제는 물론이고 속제의 지위조차 박탈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길장이 타 학파를 교화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삼론종의 중층적 이제설에서 각 단계의 설법은 모두 교화대상의 근기에 맞는 방편을 제시함으로써, 누구나 궁극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sup>51)</sup> 이때 교화대상은 속제로부터 진제로 나아가고, 가르침으로부터 이치로 나아감을 통해 깨달음을 성취하는데, 속제 없이 진제로 나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길장은 타 학파를 깨달음으로 이끌어야 할 대상으로 보기는커녕, 그들의 학설에 속제의 자격조차 부여하지 않는 배타적인 태도를 취한다. 길장에게 그들은 교화대상이 아니라, 잘못된 이제설을 전파하여 교화대상이 궁극적 이치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방해자에 가깝다.

길장의 중층적 이제설에서 각 단계 이제가 겨냥하는 대상의 근기에서는 비록 수직적 위계가 있을 수 있지만, 각 단계의 가르침이 모두 하나의 궁극적 깨달음으로 향하고 있고, 각 단계의 교화대상은 누구나 이 깨달음을 성취할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측면에서 각 단계의 이제는 모두 평등하다.<sup>52)</sup> 길장이 타 학파의 이제설을 삼론종의 중층적 이제설에 부분적으로 연결시켰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타 학파의 이제설이 이치와 동떨어진 삿된 견해며 깨달음과 무관한 학설임을 입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층적 도식을 이용한 것이다.

길장의 여러 문헌에 나타난 3중이제설과 4중이제설의 각기 다양한 차원을 분해해서, ‘범부-비답사’, ‘이승-성실론사’, ‘보살-지론사와 섭론사’의 개별적 조합을 상정해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을 당시 사상적 맥락과 상관없이 하나로 통합하여, 타 학파의 이제설을 교화대상의 세계관으로 재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중층적 이제설을 바탕으로 한 현대적 관점일 뿐, 길장의 원래 목소리는 아니다.

50) 『十二門論疏』 卷1(T. 42, 184a12-13).

51) 조윤경 2018, 114-115.

52) 조윤경 2018, 114-116.

## VI. 맺음말

현재까지 대다수의 연구는 길장의 4중이제설은 당시 비답사, 성실론사, 지론사, 섭론사의 이제설을 대치하기 위해 3중이제설에서 한 단계를 더해 발전시킨 학설로 간주했지만, 이 논문에서는 이들의 해석이 근거하고 있는 『대승현론』의 관련 부분을 검토하고, 『대승현론』 편찬자가 길장의 4중이제설을 왜곡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기존에 알려진 바와 달리, 길장이 4중이제설을 발표하게 된 까닭은 당시 지론종과 섭론종 등 타 학파의 이제설 출현과 무관했다.

길장의 4중이제설은 결코 전통적인 3중이제설의 맥락에서 벗어난 별개의 학설이 아니라, 3중이제설과 연속적인 맥락 속에서 그것을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중층적 이제설이다. 4중이제설의 교화대상도 초기 3중이제설과 마찬가지로 범부, 이승, 보살을 벗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승현론』에서 4중 이제의 대상으로 언급한 비답사, 성실사, 대승사(지론사 및 섭론사)를 이 범부, 이승, 보살에 대응시키는 관점은 4중이제설의 사상적 맥락과는 거리가 먼 현대적 해석이라 볼 수 있다.

이 논문은 4중이제설의 각 단계가 겨냥한 교화대상을 규정하는 것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는 앞으로 4중이제설의 전체 논리 구조와 사상적 특징을 밝히기 위한 토대 작업이기도 하다. 『대승현론』 편집자에 의해 삽입된 관련 텍스트와 맞물려, 4중이제설은 여러 다양한 층위의 복합적인 오해에 둘러싸여 있다. 이 논문에서 다루지 못한 4중이제설의 이론 구조와 관련한 오해는 후속 연구에서 검토할 것을 기약한다.

## 약호

T: 『대정신수대장경』

## 1차문헌

『二諦義』(T. 45)

『三無性論』(T. 31)

『法華玄論』(T. 34)

『勝鬘寶窟』(T. 37)

『中觀論疏』(T. 42)

『十二門論疏』(T. 42)

『大乘玄論』(T. 45)

## 2차문헌

안성두. 2014. 「眞諦의『三無性論』에 나타난 삼성설 해석의 특색 - 인도유식문헌과 관련하여 (I)-」,

『인도철학』 41, 서울: 인도철학회.

조윤경. 2014. 「『大乘玄論』 길장 찬술설에 대한 재고찰 - 「二諦義」를 중심으로」 『선문화연구』 16, 서울:  
한국불교선리연구원.

\_\_\_\_\_. 2018. 「삼론중에서의 깨달음, 궁극적 경지인가 점진적인 과정인가?」 『불교학연구』 55, 서울:  
불교학연구회.

히라이순에이. 강찬국 역. 2020. 『중국반야사상사 연구: 길장과 삼론학파』 서울: 씨아이알.

吉藏大師 著, 陳平坤 點校. 2016. 『《大乘玄論》點校』 臺北: 法鼓文化.

楊惠南. 1989. 『吉藏』 臺北: 東大圖書公司.

李世傑. 1999. 「吉藏」 沈謙; 慧獄; 李世傑. 『陶弘景·智顓·吉藏·杜順』 臺北: 臺灣商務印書館.

Shi, Changqing. 2004. *Two Truths in Chinese Buddhism*. Delhi: Motilal Banarsidass.

## A Critical Examination of a Prominent Theory about the Four-level Two Truths: did Jizang develop his four-level two truths theory in reaction to other schools of thought in his time?

Yoonkyung CHO

(Assistant Professor Andong National University)

The theory of the four-level two truths (四重二諦說) created by Jizang (吉藏), was based on the Sanlun school's traditional theory of the three-level two truths (三重二諦說), and is one of the most renowned teachings of the Sanlun school (三論宗). Most of the preceding studies related to the theory of the four-level two truths were the result of integrating the theory mentioned in other literature of Jizang, focusing on the theory introduced in *Dasheng xuanlun* 大乘玄論. However, the extant *Dasheng xuanlun* is neither a work of Jizang nor a compilation by his disciples. Instead, it is a document that was later attributed to Jizang, distorting many of his thoughts, including the theory of the four-level two truths.

Therefore, many issues need to be addressed in the previous studies on the theory of the four-level two truths. This paper focuses on the intended audience of each level of the two truths and examines whether Jizang developed the theory in reaction to other schools of his day. Generally, Jizang's theory of the four-level two truths is considered to have developed one step further from the theory of the three-level two truths to criticize the two truths of the Abhidharma, Chengshi, Dilun, and Shelun schools in China.

However, *Dasheng xuanlun*, which has been the basis for this argument, misinterpreted the four-level two truths theory since it has nothing to do with the emergence of Yogācāra schools which occurred at the time as the Dilun and Shelun schools. The intended audience of each stage is ordinary people, the two vehicles, and Bodhisattvas, the same as in the early theory of the three-level two truths. It is far from the original intention of Jizang to claim that those three recipients correlate with the masters of the Abhidharma, Chengshi, and Mahāyāna (e.g., Dilun and Shelun) schools, mentioned in *Dasheng xuanlun*.

Jizang's theory of the four-level two truths is not a separate theory that deviates from the context of the traditional theory of the three-level two truths but is a multi-layered theory developed more systematically in a continuous context with the theory of the three-level two truths. By focusing on the intended audience at each stage, this paper lays the groundwork for further research on the logical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four-level two truths theory.

**Keywords:** Theory of the Four-level Two Truths (四重二諦說), Theory of the Three-level Two Truths (三重二諦說), Jizang 吉藏, Sanlun School (三論宗), *Dasheng xuanlun* 大乘玄論, Dilun Master (地論師), Shelun Master (攝論師)

2022년	3월 13일	투고
2022년	4월 2일	심사완료
2022년	4월 6일	게재확정